모범 보건소 탐방

"디스토마退治에 온 精熱 쏟아.."

경남 昌寧郡 보건소를 찾아서

지난 7월 9일, 수십년내의 가뭄은 昌寧郡內도 예외는 아니어서 온 郡民이 합심협력 가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기자가 찾은 날도 가뭄대책 때문에 한치의 여가도 없다면서 잠깐 보건소에 들른시간에 마침 기자 일행이 왔다고 曺永出방역계장은 껄껄 웃는다.

昌寧郡은 14개 邑面과 13万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담한 군소재지…….

양파와 마늘의 특산지이고 제2의 경주라고 일컬을만큼 가야시대의 文化가 빛나고 있는 고장이다.

萬玉亭에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있고 이곳에서 12㎞가량을 가면 유명한 釜谷온천이 있어 관광객들로 만원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였다.

또한 관내의 영산이라는 곳에는 임진왜란때 영산현감이 의병을 모집하여 싸운 곳이기도 하여 호국공원이 세워지고 全斗煥대통령께서도 들르신 적이 있는 유명한 곳이란다.

매년 3·1민속문화제도 개최하여 郡民의 의기를 드높이고 있었다.

× ×

昌寧郡 보건소는 소장이 空席中이어서 郡사회과장 張亨杓씨가 맡고 있었다. 방역계장 曺永出씨는 보건행정계 李舜景씨 등과 더불어 보건소의 중추인물답게 특색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昌寧郡은 낙동강물을 젖줄로 하여 물경 40㎞를 끼고 있어서 특히 간디스토마 감염지역으로도 유명한(?) 군이다.

그리하여 81년도에는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여 년간 대상인원 1000명을 검사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다.

검사방법중 피내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81년도에는 1000명 검사자중 피내반응검사에서 454명의 양성자를 발견 45.4%의 높은 반응을 보여서 이들 454명을 또다시 대변검사를 하여 걸러 내어본 결과, 33명의 디스토마 환자를 발견, 7.28%의 양성률을 보였고 1000명에 対比해서는 3.3%의 양성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같이 디스토마 퇴치사업에 열성인 昌寧郡 보건소는 82년도에도 81년과 같이 피내반응검사와 대변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디스토마 퇴치에 정열을 쏟겠다고 대단한 기염이다.

또한 기생충 구제사업도 다른 市郡을 리드하여 81년도 목표량 22,000명을 100% 달성하여 우수시

군표창을 받은 바 있는 모범 보건소이기도 하다.

금년에도 7월9일 현재 목표량 22,000명중 60%가량을 완료했지만 가뭄만 아니었다면 벌써 완료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7월중에는 목표량을 완전 100% 돌파 예정으로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

…… 寄協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계몽영화 상영을 부락 단위로 순회 상영을 해 주어서 무서운 기생충 병을 일깨워 주기 바란다며 曺永出계장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특히 낙동강유역 주민들은 민물고기 잡기 등을 생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더 계몽이 아쉽다고 토로한다.

디스토마 구제약이 없다고 한숨쉬는 曺계장에게 요즈음 간·폐 디스토마 치료약이 개발되어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귀띔해 주었더니 그런 좋은약이 발명되었다니 디스토마 완전 박멸사업도 머칠 안 남았군요! 라고 활짝 환한 웃음을 터뜨린다.